

기록되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

Things unknown before being recorded

이경희(Lee, Kyoung Hee)** · 김익한(Kim, Ik Han)***

1. 서론
2. 공공기록에서의 식당여성노동자
 - 1) 기관 행위의 기록
 - 2) 숫자로 존재하는 식당여성노동자
3. 언론기사와 연구물에서의 식당여성노동자
 - 1)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언론기사
 - 2) 서발턴으로 가두는 연구물
4. 재현을 넘어 드러냄으로
 - 1) 기록 재현의 한계를 넘어
 - 2) 해방 도구로서의 기록화를 위하여
5. 결론

* 본 연구는 이경희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olivia19@hanmail.net)(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ikhan@mju.ac.kr)(교신저자).

■ 투고일: 2021년 03월 31일 ■ 최초심사일: 2021년 04월 06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4월 19일.

■ 기록학연구 68, 107-150,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8.107>

〈초록〉

재현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순환적이다. 인식되지 못하는 존재는 기록이 없고, 그나마의 기록은 왜곡되며, 왜곡된 표상이 대상을 대표하면서 비가시성을 심화한다. 말하지 못하고 재현되지 못하는 존재를 스피박(Spivak)은 서발턴(Subaltern)으로 명명한다. 이 글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과 언론보도, 연구물 등을 살펴 그들 기록이 가진 서발턴적 특징과 한계를 밝히고, 서발턴의 기록화를 위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과 구체적인 역할을 제안한다.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개체이자, 차이적 존재로서 사람 자체가 온전히 기록되어 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기록이 가지는 설명책임성은 기관을 넘어 시대와 사회로 확장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적 주체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주제어 : 식당여성노동자, 서발턴, 기록화, 비가시성, 재현, 해방의 도구

〈Abstract〉

Representation of an entity starts with recognition of its existence, and recording is mutually circular in that it acts as a means to enable the recognition of the existence. No record is left on an unrecognized entity, record is distorted if any, and the distorted reproduction represents the entity, reinforcing its invisibility. Spivak describes those who cannot speak on their own and cannot be represented as subaltern. This paper examines public record, the media and research records of female restaurant workers, identifies the subaltern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ir records, and suggests the points to be considered and specific roles required for recording the subalterns. If it is possible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representation by completely recording a person as an entity that contains the times and society, the accountability of the record to provide an account will extend beyond institutions to the

times and society, and individuals and community will be established as political subjects.

Keywords : Female restaurant laborer, Subaltern, Documentation, Intangibility, Representation, Instrument of liberation

1. 서론

한국에서 일하며 임금을 받는 여성 노동자 10명 가운데 1명은 식당에 취업해 돈을 번다. 통계청이 2019년 11월 발표한 ‘201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2,750만9천 명 중 여성은 1,190만3천 명이다.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취업자에 대해 산업 및 직업별로 세부특성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통계청, 2020)을 보면 232개의 산업소분류 중 음식점업은 가장 많은 종사자가 근무해 172만 명으로 1위이며, 그중 여성노동자는 108만 명 정도다. 취업해 일하는 전체 여성노동자 1,190만 명 중 108만 명, 약 10명 중 1명이 식당여성노동자다.

다수를 차지하는 그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다. 한국인은 한 달에 평균 12.9회 외식을 하고 외식 빈도가 하루 1회 이상인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의 35.5%에 달한다(농림축산식품부, 2019; 질병관리본부, 2019). 식당은 일상에 있고 식당여성노동자의 노동을 자주 대면하지만, 그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렵다.

다수이면서도 인식과 재현이 어려운 식당여성노동자는 전형적인 서발턴(subaltern)이다. 서발턴은 민중·소수자 등과 유의어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하는데(천정환, 2011), 여기에서는 스피박(Spivak, 1988)이 사용한, 재현과 언어의 관계에서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언어를 갖지

못해 스스로 재현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대리 재현되며 그 가치를 착취당하는 ‘재현의 밖에 위치한 사람’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스피박은 서발턴 논의를 촉발시킨 논문 ‘Can the Subaltern Speak?(1988)’에서 푸코(Foucault)와 들뢰즈(Deleuze)의 대중에 대한 입장에 반박하며 서발턴 논의를 시작한다. 푸코와 들뢰즈는, 대중은 본인의 욕망을 알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주체이며 지식인들은 이들의 재현에 역할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반면, 스피박은 대중의 재현에 지식인이 역할하지 않는다고 전제하는 것이 오히려 대상을 타자화하고 지식인을 선한 재현자로 재현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서발턴은 대리자에 의해 재현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욕망하지 못하고 그들 간의 차이도 묻혀,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는 자이다.

본 연구는 식당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기록의 실태와 재현양상을 분석해 기록되지 못하는 서발턴적 존재를 드러내고, 그들에 대한 기록화의 필요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엄밀하게 생산, 관리되어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공기록 속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현상을 살핀 후 언론기사와 연구물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들에 대한 재현양상을 분석했다. 언론기사와 연구물은 특정 현상과 대상에 대한 재현물로 대상에 대한 인식을 만들거나 강화하고 확장한다. 또, 조직적으로 생산되고 관리된다는 점, 해당 기록이 사실로 인정받는 등 신뢰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띄고 있다. 이는 기록을 “활동에 참여하였거나 활동을 목격한 사람들, 또는 그들의 공인된 대리인이 생산한, 활동의 지속적인 재현물”로 기술한 여(Yeo, 2007; 설문원, 2019에서 재인용)의 기록에 대한 정의와 일부 맥을 같이 한다.

결과적으로 스피박의 서발턴에 대한 논의는 기록으로 본 식당여성노동자의 계급성에 그대로 적용된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빈약하고, 몇 안 되는 기록은 노동자로서 현전(現前)적 지식만을 대리 재현한다.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은 서발턴 재현에 기록이 기여하지 못한

다면, 기록 밖의 존재들로 이뤄진 사회 재현에도 기록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기록 실제에서 드러나는 서말턴에 대한 비가시적이고 왜곡된 기록현상은 기록의 목적과 무엇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학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다. 기록학은 기록인 것과 아닌 것의 구분짓기를 통해 기록이 마땅히 갖춰야할 속성의 밀도를 높이는 실무 연구와, 기록의 근본 목적과 정의적 측면에서 기록 대상을 넓혀 공백을 줄이는 방식의 철학적 연구가 분리, 진행되어 왔다. 기록철학은 기록학이 인간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본질적 의미에서 기록의 목적을 고민하고, 입장에 따라 기록의 주체, 대상, 내용의 범위를 달리하는 철학적 접근이다. 철학이 시대를 해명하기 위해서 시대를 재현하는 주체를 통해 해명을 이끌어어나간다면(신승환, 2017, 160), 기록철학은 시대를 재현하는 기록은 어떠한가에 대한 근원적 질문에서 시작할 수 있다.

기록의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기록되지 않는 다수의 침묵은 동의가 되어 사회구조를 공고히 하고, 그 구조는 더 많은 침묵을 낳는다. 다양한 사건과 상황, 대상에 대한 표피적 정보의 도구로 기록이 머물 때, 기록이 되는 대상의 존재 의미는 사라지고, 의미를 담지 못한 기록은 상대적 사실 이상을 전달하지 못한다. 당대를 기록해 시대를 재현하는 기록은 기존의 정치·사회적 존재로서만이 아니라, 생명정치 철학이 촉발시킨 생물학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결합된, ‘온전한 개인’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아카이브즈의 불편부당성과 중립성 신화를 꼬집은 지머슨(Jimerson, 2009)의 문제의식에서 촉발됐다. 같은 문제의식에서 기록의 공백을 메우는 기록화 방안이나 대안기록에 대한 필요를 제기한 연구는 꾸준히 이어져왔다(김소연, 2019; 김영, 설문원, 2015; 윤은하, 2016; 이윤재, 2017). 선행연구들에서 기록이 가진 힘과 그에 따른 사회적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책임들이 오랫동안 논의되어왔고, 일상기록, 공동체기록, 다양한 대항기억의 기록화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여

전히 많은 사람들은 말할 수 없고, 기록의 도구가 없으며, 보존하고 관리되어 공유될 매체가 없다.

보존되고 관리되는 기록들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많은 이름들의 위에서 존재한다. 그것들이 온전히 기록되어 재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면, 관리되고 보존되어 기록유산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기록이 가지는 설명책임성은 기관을 넘어 시대와 사회로 확장되고, 개인과 공동체는 정치적 주체로서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발틴의 기록화는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게 하고, 그들의 능력을 보여 주며, 동등하게 소통하게 함으로써 해방의 도구가 될 수 있다.

2. 공공기록에서의 식당여성노동자

1) 기관 행위의 기록

현대 기록관리 체계는 개인이나 조직이 업무나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고 증거와 정보로서 보존·관리되는 기록이 가지는 역할에 치중하여 구축되어 왔다. ‘업무 설명책임’과 ‘증거’로서의 기능을 중심으로 진본성, 신뢰성, 무결성 등의 속성을 갖추어야 하는 정책개념적 접근에서 볼 때, 공공기록은 대상에 대한 가장 공신력 있는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기록은 기관 행위를 기록하는 게 목적이어서 식당여성노동자 등 특정 대상의 기록은 존재하기 어렵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진본성과 무결성을 갖춰 신뢰할만한 공공기록을 ‘대상자’ 위주로 보는 것이 기록 실재에서 존재하는 기록의 공백을 보여주는 데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1)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의 조사 및 수집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을 찾기 위해 정부 업무를 중심으로 식당여성노동자를 ‘식당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중장년 여성’, ‘저소득 여성’ 등 다각도로 접근했다. 보건복지부는 식당의 위생 및 안전을 담당하고, 여성가족부는 여성에 무게를 두고 가정과 사회 내 성평등 및 여성 노동환경개선 등의 문제를 다룬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노동자에 대한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3개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

1차로 여성가족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청소년 및 다문화가족 등의 사업을 이관받아 관련 예산이 편성, 집행된 첫해인 2011년부터 9년간(2011.8.1~2020.8.1) 음식점업 종사자, 저소득 여성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종사자 등 주제어에 대해 생산기록물 목록 및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요청을 이관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고용노동부 두 기관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였다. 여성가족부는 저소득 여성노동자와 관련해 진행한 연구용역 2건을 제공했는데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연구는 아니었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부처 기록이 부존재해, 2차로 3개 기관의 3년간(2017.8.1~2020.8.1)의 단위과제별 기록물 목록을 대상으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의 전체 양태를 분석했다. 기간 중 고용노동부의 전체 기록물은 총 71,906건이다. 조사대상이 광범위해 생산부서 및 단위과제에서 조직·운영일반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총 25,790건을 추렸다. 이를 대상으로, 노동자로서 ‘종사자, 노동자, 근로자’의 3개 검색어, 노동의 장소와 산업군으로 ‘식당, 음식(점), 외식(업)’ 5개 검색어로 검색해 기록을 수집했다. 식당, 음식(점), 외식업 검색어는 1건, 노동자·종사자·근로자에 대한 검색결과는 <표 1>의 총 1,496건이었다.

노동의 공간으로 식당 관련 기록 1건은 2018년 ‘음식업 프랜차이즈

안전보건 리더회의 참석요청'이다. 그 외 나머지 검색결과 도출된 기록을 대상으로 종사기관이나 노동의 특성 등을 포괄해 추려, 노동자의 직군별·유형별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노동자 전체에 대한 정책을 집행하는 고용노동부는 업무 특성상 노동자·종사자·근로자에 대한 기록이 가장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기관임에도, 3년간의 기록 중 2%만이 노동자·종사자·근로자 관련 기록이었을 만큼 노동자에 대한 기록 자체가 적었다.

식당여성노동자를 지칭하는 기록 외에도 그들의 속성으로 언급되는 '감정노동자', '저소득 노동자' 등 <표 1>에서 밑줄 그은 용어의 기록을 별도로 검토했으나, 모두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이 아니었다. 고용노동부의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유의미한 기록은 없는 셈이다.

<표 1> 고용노동부 기록물 목록 중 직군별·유형별 노동자 도출 결과

	2020년(384건)	2019년(517건)	2018년(415건)	2017년(180건)
노동자 (151건)	· 54건 -외국인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 -건설노동자	· 42건 -체불노동자 -민간위탁 -산재, 플랫폼 -저소득노동자	· 40건 -이주노동자 -청소용역노동자 -지하철노동자 등	· 15건 -산재노동자 -하청노동자 -감정노동자
종사자 (102건)	· 22건 -고용서비스종사자 -택배, 플랫폼, SW -버스운수,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	· 28건 -특고 -배달, 돌봄 -레이콘운송	· 26건 -드라마제작현장 -택시업계 -석면해체·제거 -재난안전분야	· 26건 -감정노동종사자 -학교급식 -석면조사기관
근로자 (1,243건)	· 308건 -가사, 사무직, 외국 국적 -숙박업체프런트	· 447건 -저소득가구, 사업체 현장 -소상공인, 콜센터, 교 대, 지하철 등	· 349건 -연예예술인, 농업, 건 설, 외국인 계절, 단 순 <u>노동</u> 직종, 축산업	· 139건 -산재신청, -공공주택경비, 공무원

여성가족부의 전체 기록물 건수는 총 92,627건이었다. 고용노동부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부서 및 단위과제를 중심으로 분류해 19,027건을 추

리고, 이를 대상으로 '식당, 음식(점), 외식(업), 종사자, 노동자, 근로자' 5개의 검색어로 검색했으며 여성가족부의 특성상 '근로속성'으로 검색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 식당여성노동자의 특성으로 꼽히는 '저소득'을 추가 검색했다.

검색 결과는 음식점 2건, 노동자 1건, 근로자 30건, 종사자 179건, 저소득 50건 등 전체 262건이었으나,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음식점' 2건은 '지자체별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지정현황 제출 협조'라는 같은 제목의 문건, '노동자' 1건은 '코로나 19 관련 현장 여성노동자 간담회 참석 및 협조요청'이었으며, '저소득'은 저소득 한부모나 조손가정, 저소득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과 관련한 기록이 전부였다. '종사자'는 아이돌봄 사업 및 산하의 청소년쉼터, 여성폭력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를 지칭하는데 사용됐다.

(2) 식당여성노동자 기록의 부존재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부부처 중심의 공공기록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약간의 기록마저도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전혀 담고 있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생산한 기록 중 '노동자'를 검색어로 도출된 기록은 아래 15건이 전부인데, 일반 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아니다. 이는 식당노동자 뿐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공공 기록 전체의 경향성이다.

- (사)한국일용노동자복지협회 정관변경 허가 통보(2020.2.14)
- 제주특별자치도감정노동자보호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0.1.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요청(2020.4.8)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설명자료 송부(2020.3.11)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관련 세부 설명자료 송부(2020.3.13)
- 건설노동자 노동환경 관련 자료 제출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2020.5.25)
- 2020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달(2020.6.3)
- 설 명절 대비 체불노동자 용자 지원 제도 홍보 강화 요청(2019.1.10)
- 『체불노동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대상자 확대 요청(2019.7.24)
- 『체불노동자 무료법률구조지원』 서비스 강화 관련 협조 요청(2019.8.2)
- 일본 노동자건강안전기구 및 산업보건종합지원센터 방문 협조 요청(2019.3.20)
- 2019년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달(2019.6.3)
- 2019년 겨울철 한파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시달(2019.11.7)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개최 안내(2019.12.19)
-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 회의 개최 변경 안내(2019.12.24.)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해당 기관의 업무행위가 남겨지는 것이므로 정책대상자에 대한 기록을 따로 생산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을 일일이 검색하고 분석해 나열한 것은, 공공기록 중심의 기록관리 체계는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표면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것이다.

기록생산과 관리는 공공기록 위주로 구성되는데, 공공기록을 대상 재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식당여성노동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상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공공기록의 특성상 당연하다. 문제는 그렇다면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과 사회에 대한 신뢰성있는 기록은 무엇이며, 그 기록의 생산 및 관리 주체는 누구인가이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공공기록 실태 분석은 ‘공신력 있는 기록에

서의 부재가 대상에 대한 재현불가능성을 증폭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 즉, 공신력을 인정받는 기록에서 대상에 대한 기록이 부재하면 대상을 재현할 때 언론이나 미디어 등 각종 재현물에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재현물은 원 기록에 근거한 2차 콘텐츠다. 원 기록이 부재하면 재현물도 부재하기 쉽고, 기록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재현물은 신뢰성 등의 측면에서 엄밀한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순환적 함정에 갇힌다. 이 함정에서 발생하는 기록 공백이 기록화를 위해 기록학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2) 숫자로 존재하는 식당여성노동자

행정문서 중심의 공공기록 외에도 통계청 국가통계와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물도 참조해볼 수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고 '국가정책연구포털'을 운영하는데, 23개 연구기관, 3개 부설기관의 연구물을 통합 서비스한다. 이 중 식당여성노동자와 연계된 연구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을 꼽을 수 있다.

해당 포털에서 2015년부터 2020년 9월 말까지 식당 및 음식점(17건), 노동자(181건), 종사자(305), 서비스업(259건) 등을 검색어 조사하고 검색결과 도출된 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음식점 종사자'가 등장하면서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연구는 6건, 그 중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보를 담은 연구는 3건이었다. 2건은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주요 산업별 동향조사(한국노동연구원, 201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이며, 연구보고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2015)가 유일하다. 이 연구 대부분은 통계를 토대로 하여 통계와 마찬가지로 산업별, 직종별 집단적 경향성만을 보여준다.

(1) 숫자로 존재하다

적은 기록이나마 직종별·산업별 통계와 검색결과 도출된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물을 조합하면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집단적 재현은 가능하다. 다만, 개인은 없고 숫자적 경향성만을 보여준다. 숫자는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개인 간의 차이와 한 사람의 복합적 층위는 모두 지운다.

① 식당여성노동자는 108만 가량이며, 중장년에 고졸이 많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국가 통계는 직종별, 산업별로 나눠 집계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중·소분류로 산업 전체를 구분하며 음식점업은 대분류 ‘숙박 및 음식점업’, 중분류 ‘음식점업 및 주점업’, 소분류 ‘음식점업’으로 구분된다. 통계청이 2020년 4월 발표한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2019년 산업소분류 음식점업 종사자는 172만3천 명으로 취업자 수 1위이며, 이중 여성은 108만2천 명이다. 연령 및 교육에 대한 정보는 중분류에서 제공하는데 중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214만 명이고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 58만 명, ‘30~49세’ 68만9천 명, ‘50세 이상’ 87만6천 명으로 50세 이상이 단연 많다. 교육정도별로는 ‘중졸 이하’ 39만8천 명, ‘고졸 이하’ 120만 명이다.

② 식당여성노동자는 남성노동자에 비해 적게 일하고 적게 번다

고용노동부가 2020년 6월 발표해 ‘고용노동통계’에 게시한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직업대분류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 여성의 평균 근무연령은 49.3세, 근속연수는 3.4년, 월 평균 근로일수는 21.2일, 월 근로시간은 164시간, 월 임금총액은 201만원이다. 여

성이 남성보다 한 달 평균 18시간 적게 일하고, 64만원 적게 번다.

고용노동부가 매월 발표하는 ‘2020년 5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보고서’를 보면 산업중분류 ‘음식점 및 주점업’ 여성종사자의 월 임금 총액은 211만원, 총 근로시간은 174.7시간이며, 평균 근무연령은 46.2세, 근속연수는 3년, 근로일수는 21.8일, 휴일 근로시간은 3.4일이다. 다만, 주방보조원을 포함하는 ‘가사·음식 및 판매관련 단순노무직’에 근무하는 여성은 평균연령 49.6세, 근속연수 3.6년, 근로일수 20.4일, 총 근로시간 146시간, 월 임금 177만원으로, 이에 대한 감안이 필요하다.

③ 식당여성노동자의 근무환경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열악하다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는 노동자 근무환경에 대한 가장 구체적 실태를 제공한다. 여기에서는 2019년 해당 보고서의 산업별 조사를 바탕으로 식당여성노동자의 근무환경을 분석했다. 다만, 같은 보고서에서도 직종별, 산업별 접근에 따라 통계에 차이가 존재한다.

숙박 및 음식점업 근로자는 조금 별고 많이 일하며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가입자가 적다. 전체 산업을 통틀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시간당 임금총액이 가장 낮는데, 평균 시간당 11,306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20,573원)의 55%에 불과했다. 월 근로시간은 정규직은 광업(184.8시간)에 이어 180.1시간으로 두 번째로 긴데, 비정규직은 90시간으로 전체 산업군에서 낮은 편이다. 이는 식사시간 등에만 근무하는 짧은 형태의 근로자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4대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71.6%, 68.5%로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고, 건강보험은 67.7%로 건설업(66.4%)에 이어 두 번째, 산재보험은 전체 평균(99.5%)보다 크게 낮은 92.2%로 세 번째로 낮다.

산재보험 가입률은 낮지만, 산재는 종종 발생한다. 2014년 음식서비스

업 종사자의 총 재해 건수는 7,714건으로 주방 및 조리사 관련 재해는 2,326건, 배달원은 1,666건, 기타 음식관련 종사자 재해는 3,722건이었다. 음식서비스업 종사자 중 가장 많은 산재는 배달원의 배달 업무에 따른 교통사고(1,428건)지만 배달원보다 더 사고가 잦은 것은 주방 및 조리사의 업무다. 미끄러운 주방에서 넘어지거나 화상을 입고, 칼을 사용하면서 베이거나 찢리는 등의 사고가 많다(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2) 공공기록의 비가시성

정부부처 중심의 공공기록에서는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어, 통계와 국가연구기관의 연구물도 살펴봐왔으나 통계적 정보 외 복합적 재현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든 공공기록은 음식점업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정도만을 제공했다.

검토한 공공기록을 통틀어 대상에 대해 가장 상세한 정보를 담은 최신 기록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3년 발표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방안 연구」다. 해당 보고서는 ‘음식점업’을 대표적인 저임금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통계에 근거해 음식점업 노동의 특성을 ‘여성, 중장년층, 고졸’로 꼽았다. 고용주 및 근로자와의 면담조사 내용도 담겨있는데, 식당 노동이 진입장벽이 낮아 중간경유지로 경험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은 많으나 초과수당은 없는 등 ‘일이 너무 힘들어서’ 높은 이직률을 보인다는 것 등을 밝혔으나 원 출처인 통계에서도 추정 가능해 특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

공공기록이 제공하는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정보는 ‘노동자 현황 정보’에 그친다. 식당 일을 하게 된 배경정보, 식당 일을 하면서 갖는 보람과 어려움, 일이 그녀들에게 갖는 의미, 가정과 일 사이에서의 삶, 고객과 또는 업주와의 관계성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는

다. 이 모든 정보들은 숫자로만 이뤄져 수용자로 하여금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게 만든다. “한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백 만 명의 죽음은 통계”라는 스탈린(Stalin)의 말과 같이 통계는 숫자로만 말하고 숫자는 문제를 사소화한다(강준만, 2014). 공공기록 속 식당여성노동자는 목소리를 갖지 못했고, 다양한 삶을 보여주지도 못했으며, 기록들은 단 하나의 사실만을 이야기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식당여성노동자는 불우하고, 그들에게 정책적 보호가 필요하다.”

2. 언론기사와 연구물에서의 식당여성노동자

공공기록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이 적었고, 복합적 재현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대상과 현상에 대한 재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론보도와 연구물 등의 사회적 재현물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 공백을 채울 수 있을까? 여기에서는 언론보도와 연구물을 대상으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두 기록은, 개인이나 조직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되어 업무설명책임성을 가지고 증거로서 기능하는 정책적 개념에서의 ‘기록’은 아니다. 원 기록에 기반한 2차 콘텐츠라는 점에서, ‘재현물’에 가까우나 매체에 고정되고 내용과 맥락구조를 가지며 인간의 기억을 확장하는 등 기록적 속성도 가지고 있다. 기록을 ‘활동의 지속적 재현물’로 정의한 여(2007; 설문원, 2019에서 재인용)가 언급한 고정성, 물질성, 활동성, 신빙성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1)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언론기사

언론은 가장 많은 기록이 생산되는 곳이자 다양한 기록들이 대중에

게 전달되는 매개체이다. 그 기록은 현실을 인식하는 창구로 기능하고 미래에는 당대의 상황을 보여주는 가장 쉽고 유용한 도구로 작동한다. 그 중 신문 및 방송을 통한 뉴스 보도는 특정이슈 및 사건, 사람들에 대해 재현하고, 바깥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상황에 대해 알 수 없는 개인들은 언론이 제시하는 정보와 이미지로 상황을 인지하고 수용한다. 언론이 제공하는 재현정보는 대상의 사회적 이미지 형성에도 크게 기여한다. 언론이 재현하고 바깥세계에 알리면, 많은 사람들은 언론이 재현하는 이미지를 수용한다. 식당여성노동자도 같은 방식으로 재현된다.

(1)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언론기사 조사 및 수집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언론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데이터 뉴스검색 플랫폼 빅카인즈(bigkinds)에서 ‘중앙지’로 분류해 제공하는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 등 11개 신문을 대상으로 검색어 조합으로 검색, 수집했다. 조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년인데,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는 2018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 2015~2017년 3년은 8개 중앙지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과 같다. 공간으로서 ‘식당, 음식점’ 두 개의 검색어와, 대상으로서 ‘노동자, 종업원, 종사자’ 등 3개의 검색어를 교차해 조사했다.

조사결과 도출 기사는 전체 5,593건으로, ‘식당+종업원’ 2,510건, ‘식당+노동자’ 1,566건, ‘음식점+종업원’ 779건, ‘음식점+노동자’ 551건, ‘음식점+종사자’ 187건이다. 이중 중복 기사를 제외하고 총 4,528건의 기사를 보도경향과 내용으로 분석해 범주화하면 아래와 같이 8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1) 기사의 내용과 연관성 없이 등장한 기사(2,612건)
- (2) 식당 및 노동자 또는 식당 노동자 관련 기사(639건)
- (3) 북한 식당 종업원 관련 기사(494건)
- (4) 식당 및 업주 또는 식당업주 관련 기사(259건)
- (5) 식당을 포함해 자영업자 대상의 정부정책에 언급된 기사(243건)
- (6) 식당, 업주, 종업원이 사건사고의 연관자로 등장한 기사(138건)
- (7) 정부의 산업 및 고용통계 관련해 등장한 기사(106건)
- (8) 사건사고의 배경정보로 등장한 기사(37건)

이 중 1번·3번·6번·8번 유형은 식당과 종업원, 음식점, 노동자 등이 언급은 되지만 식당여성노동자와 관련 없는 기사들이다. 5번 유형은 정부정책에 식당이 언급된 기사로, 대부분 김영란법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식당영업이 어려워졌다는 내용이며, 식당여성노동자 관련 정보는 이로 인해서 종업원이 줄었다는 정도다. 4번 유형 대부분은 식당의 경영 상태나 위생, 서비스 등에 대한 보도로, 식당업주의 인터뷰가 종종 눈에 띈다. 이때 식당업주는 어려운 경제상황의 피해자로 그려지고, 일하는 노동자의 목소리는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관계성이 저조한 기사들을 제외하고 나면, 2번과 7번 유형만 남는다. 7번은 정부 통계에 근거한 기사로,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지역별 특성’, ‘사업체 조사’ 등 각종 통계와 설문조사 등을 기반으로 한다. 앞서 공공기록에서 살펴봤듯이 이런 통계는 음식점업에 대한 산업 지형도와 식당여성노동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단초만을 제공하며, 기사 안에 ‘숫자’만 있고 ‘사람’은 없다.

나머지는 ‘식당 및 노동자 또는 식당노동자와 관련된 기사’로 분류된 2번 유형 639건이다. 식당노동과의 관계성은 가장 높지만, 식당여성노동자 관련 기사보다는 ‘비정규직 일반’이나 ‘청소년 노동자’, ‘배달 노동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과 정책적 보호의 필요성을 다루는 기사가 대부분이다.

(2) 예시로 존재하다

11개의 중앙지가 빅카인즈에 제공하는 기사의 양은 요일별 편차를 감안해 통상 1일 2,000건~4,000건 정도이다. 1일 3,000건으로 따져도, 연 100만건이 넘는 기사가 생산되는 것이지만 식당여성노동자와 관련해 도출된 기사는 5년간 4,528건이 전부다. 대부분 엑스트라에도 미치지 못했고, 식당여성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기사는 1년에 단 한 건도 보기 어려웠다.

빈곤한 언론보도는 빈곤한 재현으로 이어져 언론 속 식당여성노동자들은 계속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만 남아 특정 현상만을 ‘예시’한다.

① 가난한 여성들의 삶을 예시하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힘든 여성들의 생애를 훑다보면, 식당에서 일했다는 짙은 정보가 그녀들의 어려운 삶을 보여주는 증거로 등장한다. 어려운 누구나 그렇듯 그녀도 으레 ‘식당’에서 일했다.

노금순씨(61)는 …(중략)… 2003년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사망한 뒤에는 김밥 집에서 일하거나 다단계에 뛰어들기도 했다. (중략) 원풍 동지들은 청소노동자로 살아가거나 대학 구내식당, 마트에서 일한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기도 한다(경향신문, 2019.10.12.).

② 가치 낮은 노동, 가치 낮은 삶을 예시하다

식당 일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는 노동’이고, ‘경력이나 경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노동’이어서 적은 월급을 받거나, 고객이나 업주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노동자로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 외부의 시선은 스스로를 바라보는 거

올이 된다.

한국은 노동가치를 진지하게 토론해 본 적이 없는 사회다. 그러나 “조리사라는 게 별게 아니다. 옛날 같으면 그냥 조금만 교육시켜서 시키면 되는 거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돼야 하는 거냐”(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말을 쏟고, ‘한국은 식당 웨이터 월급이 의사의 19% 불과…독일은 32% 수준’이라는 기사에는 “학교 다닐 때 놀러만 다닌 웨이터가 의사의 19%라도 노력을 했느냐”는 댓글이 달린다(한국일보, 2017.7.27.).

나는 60점짜리 엄마다. …(중략)… 남편과 이혼하고 세 식구가 됐다. 한 달 110만원 받던 식당 서빙, 하루도 안 쉬면 125만원을 채 워준 카바레 주방장을 하며 버텼다. 그사이 ‘악’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두 아이가 사춘기를 났다. …(중략)… 엄마로서는 실격이다(경향신문, 2016.1.26.).

③ 어려운 경제상황을 예시하다

한국은 IMF 이후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들이 양산됐다. 여성의 일자리는 남성에 비해서, 비정규직의 일자리는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이 낮고 근무 기간은 짧으며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불안한 노동이다. 식당노동은 대표적인 불안 노동이다.

여성 일자리의 임금과 안정성은 개선되지 않았다. 15대 직업의 남성 평균 월급은 287만원인데 반해 여성은 172만원에 그쳤다. …(중략)… 다만 15대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2012년 62.9%에서 5년 뒤 49.6%로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음식 관련 단순종사원(90.8%) 등 8개 직업은 전체 노동자의 평균 비정규직 비율(40.6%)을 크게 앞질렀다(한겨레신문, 2018.4.11.).

식당노동자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해고되거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급여를 줄이기 때문에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식당 종사자 수나 급여가 뉴스에 오르내린다.

음식점 및 주점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수는 줄곧 3만 명 미만을 유지하다 지난해 상반기(4만5,729명)와 하반기(4만3,554명)부터 4만 명 이상으로 급증 …(중략)… 계속되는 내수부진에다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운영비 증가가 종업원 감축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한국일보, 2018.8.12.).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는 서발턴들은 ‘사건’을 통해 그나마 드러날 수 있다(김수환, 2009; 김원, 2011). 배달이나 택배 등 플랫폼 노동자나 비정규직에 대한 보도가 식당노동자보다 더 많은 것은 사고 등 불행한 사건에서 비롯되거나 사건이 누적되어 사회의 총체적 문제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식당여성노동자는 파업이나 투쟁 등 노동자 관련 보도가 가지는 뉴스적 속성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들은 파업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며 노조활동을 하지 않는다(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그나마의 언론기사에서 식당여성노동자는 정부의 각종 발표와 정책 내 통계에서 ‘음식점업 종사자’로 집단화되거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는 소규모 식당업주의 ‘종업원’, 또는 일하는 것에 감사해야 할 만큼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노동자’로 등장한다. 식당노동자의 이름 하나 제대로 언론에 드러난 적이 없으며, 인터뷰는 한두 줄을 넘기지 못한다. 식당노동을 하는 개인은 없고 열악한 노동자 집단만이 재현된다.

존재는 차이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나 언론 속 식당여성노동자는 사회적 보편 현상을 보여주기 위해 동원되면서, 개별적인 삶의 차이는

지워지고 ‘식당여성노동자’ 집단으로 묶여 보편적 현상을 드러내는 장치로 사용된다. 개별적 경험과 구체적 사례들이 보편적 상황으로 환원되면서 개인은 사라지고 분리된 개인들의 특정 단면들이 모인, 집단만이 남는다.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사회 속에 재현하는 기록은 부재하고, 존재를 분리해 기록하는 기록이 생산·확산될 때, 개인으로서의 인식은 더 어려워진다.

2) 서발턴으로 가두는 연구물

연구는 인식을 드러내고 문제를 밝혀 해법을 찾는 과정으로, 대학과 연구소 등 다양한 연구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연구물과 연구과정에서 만들어진 조사 및 인터뷰 등의 연구 데이터는 기록 속성으로 꼽히는 정보적 가치와 자산적 가치를 모두 지닌다(김지현, 안채영, 2000, 116). 연구에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 부존재는 사회적 대상으로 인식될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며, 왜곡은 문제와 해법이 잘못됐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한편 연구물은 지적 활동의 산물로, 연구의 목적과 대상, 그에 따른 연구가설이 명확하다. 명확한 연구가설에 따른 연구는 결국 연구결과에 복속하는 데이터만 수집되고 해석되는 특징을 가진다.

(1) 식당여성노동자 연구물 검색 및 수집

식당여성노동자는 노동자와 여성으로서의 연구적 속성을 모두 지니고 있어 각 부분의 연구동향을 먼저 본 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RISS에서 ‘국내학술’과 ‘학위논문’을 나눠 수집했다. 1차 검색어는 ‘노동자’와 ‘종사자’, 2차는 ‘여성’, 3차는 ‘식당’과 ‘음식점’, ‘증장년’, ‘기혼’ 등 4개 검색어를 교차해 적용했으며, 실

제 사용 용례에 근거해 노동자에는 ‘저소득’을, 종사자에는 ‘외식업’을 추가했다. 조사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총 10년, 한국어로 작성되고, 원문을 제공하는 연구로 한정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도출된 연구물은 총 429편이며 검색어별로 <표 2>와 같다.

<표 2> 조사 검색어별 검색결과

노동자 + 여성	176편	식당	음식점	저소득	중·장년	기혼
	국내학술(70편)	15	5	10	9	31
	학위논문(106편)	11	4	20	22	49
종사자 + 여성	253편	식당	음식점	외식업	중·장년	기혼
	국내학술(42편)	1	4	2	8	27
	학위논문(211편)	10	7	18	21	155

검색결과 도출된 429편의 연구 가운데 39편이, 각각 1번에서 최대 4번까지 중복되어 총 46편의 중복이 있었기에 정확한 조사결과는 383편이다. 다만 조사 특성상 중복을 포함해 분석을 진행했다.

검색조건에서 국내학술과 학위논문을 통틀어, ‘노동자’ 연구는 총 7,820편, ‘여성’ 노동자 관련 연구는 전체의 19.8%인 1,584편이다. 하지만 ‘식당’과 ‘음식점’을 특정하면 각각 26편, 9편 등 총 35편에 그친다. ‘종사자’ 연구는 총 12,078건으로 ‘노동자’ 검색결과보다 4,000편 이상 많았지만 ‘여성’ 종사자 관련 연구는 1,137편으로 전체 종사자 관련 연구의 9.4%였고, ‘식당’ 및 ‘음식점’을 추가하면 22편 0.18%로, ‘노동자’ 검색어 결과보다 더 낮았다.

‘노동자’, ‘여성’, ‘식당’의 속성을 모두 갖춘 연구는 중복을 제외하면 65편이었다. 검색으로 도출된 연구물의 양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제 적합성이었다. 전체 65편의 내용을 검토해 식당여성노동자와의 주제 적합성에 따라서 상, 중, 하로 나눠보면, <표 3>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표 3〉 식당여성노동자 주제 적합성에 따라 나눈 연구 목록

구분	연구 제목
상 (9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 문제 진단과 정책·실천 과제(2011) •민우회가 지어간 식당여성노동자의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2011)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러나 잘 알지 못하는 식당여성노동자의 이야기(2010) •식당여성노동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하며(2011)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마치고(2011)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프로젝트 (2010) •103주년 3·8 여성의 날(2011)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경향(2011)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2010)
중 (14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2012) •외식기업 종사원의 경력정체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경력동기와 조직경력 개발지원의 조절효과(2015) •다문화가정에 대한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연구 : 서울특별시 성동구 거주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2013) •목포지역 초등학교 급식 조리종사원의 근무격계 질환에 따른 작업환경에 대한 실태 분석(2012) •빈곤한 어머니의 양육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2014) •산업연관표를 통한 우리나라 외식산업의 고용효과 고찰(2011) •서울시 ‘한국계 중국인’의 주요 거주 지형도와 경제활동(2016) •외식업체 중간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에 따른 종사원의 조직몰입, 만족,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2013) •외식조리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분석(2013) •외식창업자의 개인특성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2015) •자동차공장 식당 여성노동자의 일상(2011) •저녁이 있는 삶은 가능한가 : 한국 임금노동자의 생활시간조사(2015) •중장년 조선족 여성 이주노동자의 몸 아픔 경험에 관한 연구(2014) •호텔 조리종사자의 삶의 질 : 서울시 특급호텔 대상으로(2015)

주제 적합성 ‘상’은 식당여성노동자를 주인공으로 다룬 연구물로 총 9편, ‘중’은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구내식당이나 호텔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관련 연구나 식당여성노동자가 연구 사례나 대상으로 등장한 경우로 14편이다. ‘하’는 식당여성노동자와의 상관

성을 찾기 어려운 연구로 모두 47편이었으며 여기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

주제 적합성이 높은 9편의 연구물 중 8편은 2010~2011년 한국여성민우회가 전개한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환경만들기를 위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캠페인과 연계된 기록이며, 이중 연구물로 볼 수 있는 것은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환경만들기 : 문제진단과 정책·실천과제」(김원정, 2011) 1편이다. 그 외 나머지 7편은 캠페인 진행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소식지에 실린 글로 연구로 보기 어렵다. 주제 적합성 ‘상’ 중 나머지 1편은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식당노동종사자를 중심으로」(김효정, 2009)이다. 이 연구는 식당노동에 종사하는 기혼여성들이 노동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음식점업에 종사하면서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 13명을 인터뷰했다. 장시간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주체적인 노동의 의미 획득이 어려울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과는 달리, 주체적인 노동을 선택한 자로서의 행위성을 식당여성노동자의 입으로 전하고 있다. 적합도 ‘중’의 연구는 연구자가 제시하는 연구 틀 안에서 식당여성노동자를 특정 사례나 대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 그들의 비가시성을 밝히거나 목소리를 복원해 접근한 연구는 없었다.

(2) 프레카리아트로 규격화되다

연구물에서는 한국여성민우회가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환경만들기를 위해 진행한 ‘함께 짓는 맛있는 노동’ 토론회에서 발표한 김원정(2011)의 연구와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김효정(2009)의 연구가 가장 근접한 연구였다. 기타 연구들은 식당 노동의 특성에서 비롯된 종사자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다.

주제적합성 상·중의 <표3>에 언급된 23편의 연구물을 ‘범주화 분석

방법(categorizing research analysis)'으로 식당여성노동자를 인식하는 태도와 재현의 방식 등을 분석했다. 범주화 분석은 의미피약을 위한 시도로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부르고, 범주화하는가를 밝히는데 유용하다(Jalbert, 1983; Fly, 1985; 백선기, 2006에서 재인용). 연구물이 식당여성노동자에 부여한 기호를 찾고, 기호들 사이의 공통경향을 찾아 묶는 범주화 과정을 거쳐, '가난한 삶', '열악한 노동환경', '저소득 가구주'의 범주를 도출했다.

첫째, 식당여성노동자는 가난한 여성을 상징하며, 생애를 관통하는 '가난한 삶'으로 드러난다. 식당여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한 연구들은 한결 같이 대상자의 생애를 나눠 딸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경험한 차별과 결혼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담은 후 그로 인한 이혼이나 사별을 거쳐 빈곤한 여성 가구주나 빈곤한 노인으로 연결한다. '빈곤한 삶', '빈곤에 빠지지 않으려는 몸부림', '여성빈곤노인', '빈민권', '전 생애에 걸친 가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등이 계속 거론된다.

둘째, 식당노동을 다른 일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지막 선택지처럼 규정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대표적인 기호로 사용한다. 식당노동에 대한 연구는 '장시간 노동', '낮은 급여', '파트타임', '저임금 노동시장', '식당노동의 고됨', '쉬지 못하는 식당노동', '하인서비스',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의 단어가 노동자와 연결되어 등장한다. 또 '못 배우고 가난한 어머니들의 일', '가장 여성적일 일자리' 등을 잘못된 사회적 인식으로 거론하는데, 이는 의도와는 다르게 결국 식당노동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식당여성노동자를 독립된 객체로 조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진 '엄마'로 인식하고 엄마로서 그들을 분석하는 '저소득 가구주'로서의 접근이다. 해당 범주에서는 앞서의 두 가지 어휘들이 동시에 등장하면서 그들을 '가난하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엄마'로 표상화 한다. 여성가구주가 식당노동을 하게 된 계기에는 '빛과 폭력'으로부

터 벗어나기 위해', '생계부양 의무를 위해', '여성에게 허용되는 직업' 등의 어휘가 동원된다. 식당노동의 어려움은 '벗어나기 힘든 저소득 상태', '가족으로부터 공감의 관계를 유지하기 매우 어려운', '가족들에게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이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연구들은 식당여성노동자를 호명하고 그들을 조사·연구했다는 의미는 있지만,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접근이 처음부터 열악한 노동자, 정책적 돌봄이 필요한 정책적 대상으로 타자화하는 한계가 명확하다. 한국여성민우회와 민주노동당이 진행한 식당여성노동자 대상의 캠페인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당사자의 목소리는 조사결과나 발표자료 속 짧은 인용으로만 남아있다. 그들은 캠페인의 주체로 참여하지 못했고, 스스로 말하지 못했다. 대리 재현되면서 식당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하거나 빈곤한 여성노동자로 집단화되었고 개별적 삶의 다양한 차이들은 드러나지 않았다. 서발턴은 차이에 의해서 정체성이 발현되는 존재다. 고유명사화되지 못한, '여성노동자'라는 일반명사 속에 묻힌 연구적 재현은 그들을 서발턴에 가두는 요인이 된다.

연구물의 또 다른 특징은 연구자의 투명성이다. 연구자 스스로는 투명한 존재가 되어 연구를 진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제와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자의 의도가 개입된다. 연구자가 서발턴을 대리 재현하면서, 서발턴 당사자는 본인의 이해관계와 유리되고 연구자의 의도에 맞춰 재현된다. 이는 과잉기술과 과잉해석으로 이어진다. 연구의 주제와 의도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원 기록들을 선별해 이용하고, 연구적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상황에 대해서 과잉 해석하거나 기술한다.

스피박은 억압받은 자의 경험이 지식인의 입으로 전해지면서 억압받은 자는 타자화·객체화 되고, 제대로 된 서발턴의 드러남을 가로막는다고 보았다. 연구에서도 연구 목적과 방향에 따라 대상자의 개별적 차이를 보편성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존재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방식

으로의 기록학적 기술과 윤리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4. 재현을 넘어 드러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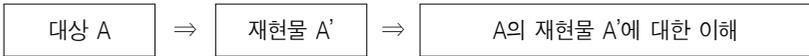
1) 기록 재현의 한계를 넘어

(1) 대상 재현의 한계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모두 대상자에 대해서 대신 말한다. 스피박(1988)에 따르면, 재현은 ①대변하는 재현(speaking for), ②다시 보여주는 재현(representation)으로 나눌 수 있고, 지식인은 서발턴을 대변해 재현하면서 서발턴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스스로를 정직한 존재로 재현한다. 서발턴은 대표자에 의해 재현되면서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욕망하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식당여성노동자 또한 스스로 재현하지 못하고 누군가가 대표해 재현하면서 그들 노동의 가치는 더욱 착취된다.

‘대상을 다시 있게 한다’는 뜻의 재현은 회화 등 미학에서부터 문화 연구, 인문·사회·정치·철학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사용되는 개념이다. 재현은 원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고 재현과 실재 사이의 논쟁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이다. 르네 마그리트는 파이프를 그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림에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붙이며 논쟁에 불을 지폈다. 푸코는 같은 제목의 책에서 파이프가 아니라 ‘파이프에 대한 소묘’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재현이 대상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재현은 필요하다.

〈그림 1〉 Gadamer의 재현에 관한 인식



가다머(Gadamer)는 존재하는 대상을 포착해, 자신의 관점에서 고정·인식하고, 이를 재현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재현의 과정을 〈그림1〉과 같이 정리했다(박성수, 2000, 39-40; 류한조, 2008, 14에서 재인용). 가다머는 현존하고 있다고 여겨지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현존하지 않는 어떤 것을 현재화 시키는 것을 재현이라고 설명한다. 재현이 “줄곧 가려져있고 멀어져갔을 어떤 것을 끄집어내어 데려와 빛 아래 세운다”는 것이다. 대표는 단순한 대행이 아니며, 대표를 통하지 않으면 결코 보지 못했을 어떤 것을 “의미 있고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오게 함”으로서 보이지 않는 것에 가시성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이해가능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김창래, 2012, 70).

진태원(2018)은 한국 대중들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호칭인 ‘을’을 새로운 정치의 주체로 끌어올리면서, 재현(representation)을 개념화하고 확장한다. 그에 따르면, representation은 첫째, ‘재현하기’로 대상을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제시함이다(re-presentation). 둘째, ‘대표하기’로 재현의 정치적 표현이며, 투표로 의사를 밝히는 유권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식의 대의제로 이해될 수 있다. 셋째, ‘재-현하기’로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을은 대표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하기의 과정을 거치며 주체로서 구성된다고 본다. 대리 재현은 재현과 대표가 결합하면서 만들어지는데, 대표자는 대상자의 현존을 전제로 ‘그들의 이해관계와 욕망,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시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대리 재현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진태원, 2018, 450-455).

〈그림 2〉 재현의 확장 단계



존재를 인식하는 일은, 기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 재현은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상호 순환적이다. 인식되지 못하는 존재는 기록이 없고, 기록이 없는 존재는 다시 어둠속에 묻힌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들은 묘사되고 제시되는 2단계의 과정에 머물러있으며, 3단계의 과정으로 진입한 일부 기록들도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다시 들려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현에는 미치지 못했다.

(2) 재현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 분석은 공공기록과 언론기사, 연구물에 걸쳐 해당되는 기록을 찾고, 기록 속 식당여성노동자의 재현을 복원해 보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출처를 막론하고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웠으며, 빈약한 기록은 기록의 왜곡으로 이어졌다. 대상에 대한 복합적 재현 대신, 목적에 복무하는 측면 중심으로 과잉 또는 과소 기술된다. 앞서 살펴본 모든 조사 대상에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기록하기 때문에 삶과 경험을 고스란히 담은 개별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포괄적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 한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스스로 기록하는 것이지만, 스스로의 기록도 매체와 확산의 도구를 갖지 않으면 여전히 사회적 인식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가진 기록자가 스스로 재현의 대상자가 되어보고 그 경험을 기록하거나 그들에게 언어와 매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는 르포식 ‘새로운 쓰기’이고 두 번째는 ‘자기 역사 쓰기’와 ‘다큐멘터리’ 등이다.

‘새로운 쓰기’는 활자와 매체를 가진 재현자가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쓴 당사자성을 가진 재현의 기록을 말한다. 솔루션 저널리즘이나 사회적 약자보도의 차원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 시사주간지 『한겨레21』의 4명의 기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에 천착해 2009년 7월 갈빗집과 감자탕집, 가구공장과 가전제품 공장, 대형마트 등에 위장 취업해 한 달간 일을 하고 이를 연재했다. ‘노동OTL’ 시리즈다. 이 시리즈를 담은 책, 「4천 원 인생」(2012)은 서두에 이렇게 적고 있다.

“숫자는 사실 무미건조하다. 흰색 종이에 검정색 잉크를 일정한 모양으로 입혀놓은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상상력이 필요하다. 숫자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찾는 일이다. 4명의 기자들은 ‘오직 증인으로서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2000년대 후반에는 식당여성노동자를 포함해 열악한 노동자들에 대한 인터뷰 형식의 책들도 많이 출판되었다(송기역, 2015; 안미선, 2019;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2016; 이문영, 2017; 이승원, 정경원, 2011). 이 책들은 소외노동자의 일과 삶에 주목해 그들의 투명성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구술과 인터뷰를 토대로 표준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다큐멘터리’는 현실을 단순히 모사하거나 복사하여 기록하는 것을 넘어, 실재의 창조적 가공으로 정의된다. 사건의 기록에서 출발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이미지와 사운드를 포착하지만 영화적 장치를 통해 다양한 가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레코드 차원의 기록과는 다르다(송지수, 2019).

하지만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이용해 사회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소수자의 존재와 서사를 적극 포착해 다원적인 사회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김익한, 장대환, 2018, 306) 점에 비춰볼 때 다큐멘터리는 노동자의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미학적으로 재현해 사회적 공감과 연대를 창출하며 아카이브 방식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

1970년대 노동자 스스로 삶과 실천을 기록하며 투쟁의 수단으로 시작한 ‘자기역사 쓰기’는 역사적 사료를 남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성이 앞의 주체이자, 생산자, 글쓰기의 주체로 성장한 사례이다. 하지만 1990년대 노동운동이 주춤해지면서 사그라졌다. 신자유주의 이후에는 노동자로서 의식을 갖출 기회조차 갖지 못한 프레카리아트화 된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과 이야기를 하찮거나 사소하게 여기는 의식이 강화되었고, 노동자가 자기역사 쓰기는 물론 구술도 어렵게 하는 구조를 낳았다.

‘스스로의 기록’은 작은 기록들이 모여 특정 시기, 특정 주체의 행동 양식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과 대리 재현의 한계를 벗어나 스스로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그들에게 내적, 외적 동기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필요를 발화시킬 수 있는 계기와 그 계기를 실현시켜주는 과정이 복합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서발턴 기록화를 위한 고민과 노력은 여기에서 시작될 수 있다.

현재의 기록체계는 공공기록을 중심으로 한 관리에 집중한다. 기록이 없고, 소수의 왜곡된 기록만이 있을 경우 기록의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록은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미디어를 포함한 각종 재현물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고 관리되기 때문에 신뢰성 등 기록으로서의 공신력을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식당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러한 기록 현상은 기록이 닿지 않는 비가시적 영역을 어떻게 기록화하여 가시적 영역으로 전환시켜 나갈지에 대한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이를 위해서 공공기록, 선별평가, 장기보존, 정치적 객관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기존에는 기록에 금기되어 있던 것에 대해 도전하면서 기록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개인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시대를 규명하는 기록 생산을 위해서는 공공기록과 같은 생산 및 관리체계를 갖춘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가 재현물과 같은 다양한 방면의 복합적 기록을 생산하려는 융합적 노력을 펼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 해방 도구로서의 기록화를 위하여

(1)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사회는 다양한 군집들로 구성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은 필요에 따라 연령이나 성별, 가족구성, 거주지, 학력, 직업 등 특정측면을 중심으로 임의 분류된 집단으로 나뉘어 대상화 된다. 사회를 이루는 개인도 가족이나 타인과의 관계에 따라 복잡한 층위를 가진다. 그러나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들은 하나같이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층위를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대신 의도에 부합하는 지점만 부각해 담는다. 이러한 기록은 상대적 사실만 기록할 뿐 대상에 대한 온전한 재현과 복합적 진실은 담지 못한다.

식당여성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자나 돌봄자 등 사회·경제적 측면만 부각해 인식하고 재현하는 기록은 실존적 삶 자체에서 발현되는 생명본연의 의미와 존엄을 잃게 한다. 생명을 대상화하지 않고 전 존재론적 영역에서 다루는 생명정치 철학의 관점에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

록 양상은 기록 생산기관과 보존기관 현장에서의 필요를 넘어 기록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왜 기록을 남기는가. 기록은 시대와 사회의 재현에 기여하고, 대상 인식의 수단이 되며, 2차 기록으로의 확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목적에 따라 분리해 조망하는 한계를 넘어 인간 자체를 존재론적으로 사유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인간은 그 자체로 시대와 사회를 담지한 온전한 개체로서 기록의 대상이다. 사건과 사고로 파괴당하거나 스스로를 파괴해야 기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기록의 존재근거는 무엇인가. 기관의 설명책임을 위한 증거나 정보, 활동의 재현을 위한 기록은 결과적으로는 인간에게 삶의 정당성과 존재의 목소리를 지켜낸다는 궁극적 목적에 기여할 때 의미를 가진다.

(2) 서발턴 기록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예시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기록 밖의 존재인 서발턴 기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두 가지 전략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그들 스스로 기록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필요와 능력을 고양시키는 교육이며, 다른 하나는 대상에 맞춘 기록 방법을 찾는 것이다. 두 길은 하나의 목표에서 만난다. 조직 중심으로 발달해온 기록 생산과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대상자에 맞는 다양한 기록의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고, 기록 생산과 관리, 활용이 가능하게 문턱 낮은 기록 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식당여성노동자의 특성에 맞춰 실천 가능한 기록화 방안을 예시로 제시한다. 기획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기록원에서 근무하는 기획자 '나'의 기획과 집행 과정을 가상의 예로 정리했다. 실제 집행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여 연구의 추상성을 낮추기 위한 접근이다.

① 기록하라, 유일한 기록자가 된 것처럼

서울기록원에서 일하는 ‘나’는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을 위해 대상의 특징에 맞춰 그들이 쏟아야할 자원은 최소화하면서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장치로 ‘움직이는 기록의 방’을 기획했다.

‘움직이는 기록의 방’은 전문 동영상 및 사진 촬영팀과 작가팀을 섭외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서포터즈 신청을 받아 총 10개 팀으로 꾸렸다. 팀당 인원은 2~3명이었으며, 전체를 총괄 기획할 기록코디네이터가 함께 했다.

프로젝트 진행은 한국외식업협회의 도움으로 지역을 나눠 종업원 3인 이상이 근무하는 식당을 섭외했다. 1주차에는 대상과의 거리를 좁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밥 먹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2주차에는 ‘식당여성노동자 빌려오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는 외식업협회의 도움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업주의 허락 하에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주 2회 평일 낮 2시간(보통 3~5시) 가량을 인근 카페에서 만났다. 우리가 운을 떼면 그들이 스스로 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는데, 크게는 살아온 인생, 식당노동의 계기와 상황, 가정생활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수첩과 펜으로 구성된 기록패키지를 전달했다. 수첩에는 하고 싶은 말이나 생각나는 것, 작은 낙서라도 언제든 2주에 걸쳐 적게 했고, 필요한 경우 휴대폰 문자 등으로 따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중에도 ‘밥 먹기 프로젝트’를 병행했는데 기록을 중용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오랜 시간 그곳에 머물면서 그들의 기록을 더 풍성히 하고 그들이 남기는 이야기와 글에 대한 맥락을 이해해보려는 목적이 더 컸다.

그렇게 4주차가 끝나면 그동안의 모든 동영상 촬영분과 사진, 텍스트 기록, 그들이 남긴 수첩 기록들을 가지고, 하나의 기록으로 담는 일

이 이어졌다. 팀마다 전자책과 짧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사용된 모든 기록은 서울기록원 ‘시민기록’으로 이관되어 관리된다. 6주에 걸쳐 완성된 기록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했으며, 당사자에게는 기록 결과물을 전달했다.

② 관찰하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록의 방’과 더불어 진행한 기록 프로젝트는 ‘관찰일기’였다. ‘움직이는 기록의 방’이 직접적으로 당사자와 친분을 쌓고 그들과의 대화로 기록이 구축되면서 기록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었다면, 참여관찰의 방법을 활용한 ‘관찰일기’는 기록자가 최대한 숨는 방식을 이용했다. 대상은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은 채 일상을 살고,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기록하는 것에 주력했다.

이 방식은 영국의 사회혁신단체인 영파운데이션(Young Foundation)이나 네스타(NESTA)에서 진행한 참여관찰(ethnography) 방식을 참조했다. 이들은 공공행정 및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아우르는 사회혁신을 위해서 실제 사람들의 일상을 참여 관찰하고, 그 속에서 변화의 필요나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연구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영파운데이션이 진행한 ‘Rough night’ 보고서 등을 참조할 수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약 2년간 50명의 야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노동생활을 직접 관찰하고 인터뷰하면서 그들의 노동현장과 노동이 미치는 영향을 기록했다. 이는 대리 재현 연구자들이 조사대상에 대해서 사전에 가지고 있던 가정과 편견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이러한 사례들을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 ‘관찰일기’이다. 참여관찰을 하면서 시간별로 작성한 보고서와 사진 등의 자원 자체도 기존에는 없던 기록이지만, 참여자들의 개별 사례와 일반적 현황을 함께 담은 참여관찰 보고서 ‘관찰일기’는 대상에 대한 심층 보고서이자, 재현기록으

로서 기능했다. ‘관찰일기’ 외에 ‘참여자 노트’라는 개별 결과물도 주목해 볼만 하다. 참여자 노트는 관찰자의 일상과 소감에 대한 기록이다. 관찰자는 관찰로 인해서 본인의 일상이 틀어지고, 사고의 체계가 전복되는 경험들을 겪는데 그 경험은 자신의 변화에 주목해, 참여자 노트에 작성되었다. 이는 개인신상정보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 새로운 콘텐츠화가 가능했기에 더 많은 참여와 공감을 유발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③ 교육하라, 꿈꾸는 모든 것이 이뤄질 것처럼

개인 기록화를 위한 교육으로는 자서전 쓰거나 글쓰기 교육 등이 있다. 하지만 이는 평일 낮에 시간을 내어 교육에 참여할 정도의 본인의 의지와 가족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기록화 교육, ‘오늘의 기록미션’ 프로젝트는 기록을 해보는 경험을 쌓아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이 프로젝트는 움직이는 기록의 방식이 종료된 이후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면서 참여자 모집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먼저, 단체 메신저 방을 개설해 대상자들에게 매일 아침 미션을 보냈는데 미션은 간단했다. 오늘 출근길 사진 한 장, 오늘의 기분 한마디, 동료나 사장(직장상사), 또는 나에게 하고 싶은 한마디 등을 미션으로 제시하고 메신저에 올리게 했다. 휴대폰 메신저 앱을 이용한 것은, 접근이 편하고 시간적 소요가 적은 매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록과 친해지고 기록의 습관을 남기기 위한 교육으로, 매일 미션을 인증하면 음료수 쿠폰을, 두 달간 꾸준히 참여한 이들에게는 사은품을 제공했다. 2개월간의 ‘오늘의 기록미션’이 종료된 이후에는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는 ‘주간일기 쓰기’ 프로젝트를 이어 진행했다. 매주 한 편의 일기를 쓰고 공유하는 것으로, 일기 분량에 제한을 두지 않아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낮추었다. 손으로 쓰는 일기 외에도 메신저

의 음성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편하게 말하는 음성일기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별도로 기록의 과정을 거쳐 공유했다. 교육은 기록과 친해지는 계기를 마련해보는 정도로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습관을 들이는 방식의 교육으로 직접 기록을 쓰는 일이나, 남겨진 기록을 공유하는 일 등이 조금씩 가능해졌다.

(3) 해방 도구로서의 기록화를 위하여

서발틴 기록화는 그들의 존재를 기록하여 알리고, 인식을 확대하여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발틴을 서발틴이 아닌 상태로 구성하는 것 즉, 서발틴 기록화는 ‘탈서발틴화’를 지향한다. 서발틴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 독자적인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 닿고 공명할 때 서발틴에서의 탈출은 시작될 수 있다. 서발틴을 서발틴이 아닌 상태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해방으로서의 정치를 개념화한 랑시에르(Rancière)가 이야기 하는 해방이다.

랑시에르는 해방을 소수파(minorite)에서 탈출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소수파란 모든 것의 셈을 균등하게 받지 못한 자, 권력 배분에서의 소수이다.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은 서발틴들은 전형적으로 뒤편에서 배제된, 그의 표현대로 ‘뭉 없는 이’로서의 소수다. 소수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보이고 읽혀야 한다.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 속에서 모두와 소통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사회 속에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며, 단지 욕구와 불평, 항의의 존재가 아니라 근거와 담론의 존재임을 밝히는 것이다. 그들이 근거와 근거를 대립시키고 자신들의 행위를 하나의 증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그들이 상대와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음을, 평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Rancière, 2016, 92-93).

서발턴에 대한 ‘대신 말하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는 그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할 수는 있으나 그들을 해방의 주체로 세우기는 어렵다. 연구자나 기록자는 이들을 획일화하고자 하는 욕망에 갇히기 쉽고, 그들의 언어로는 서발턴의 이질성과 고유성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기록은 노동자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도구, 그들이 근거와 담론의 존재임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 노동자가 동등한 언어와 논리로 말할 수 있도록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고 그들의 목소리가 기록으로 남아, 노동자의 현실을 그들의 언어로 이해할 수 있을 때 불평등의 논리는 극복될 수 있고, 해방으로서의 정치를 새롭게 사유할 수 있다.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재현의 마지막 단계는 ‘포스트모던 재-현’의 단계다. 이는 이미 존재하는 것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대상 자체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 범주나 대상을 재구성하면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게 하는 것까지 연결된다. 기록의 재현이 포스트모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식당여성노동자들이 대리 재현되고 정치적으로 대신 제시되는 객체화의 단계를 넘어, 그들 스스로 말하고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의 주체로 세워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모두와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서발턴의 기록화는 새로운 정치, 해방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5. 결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들어있지 않은 통계 위주의 기록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평균치의 삶에 익숙하다. 적당한 노동과 삶의

시간, 적당한 벌이, 적당한 사회관계의 양과 질, 그에 맞춘 행복의 기준들 속에서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어렵거나 불행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한다. 식당여성노동자는 남들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며, 많이 배우지 못했고, 좁은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모든 기록은 평균치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하지만 애초에 평균치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아니라 숫자로만 이뤄진 평균과 기록으로 남겨진 사람들의 삶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균이다.

평균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 평균치에 빗대어 그보다 낮은 삶을 ‘사회적 약자’라고 부르며, 언론은 그들에 대해서 보도하는 것을 언론 윤리의 사명으로 여긴다. 사회적 공기로서 여론과 관심을 환기해야 할 언론과 기록의 도구와 확장의 매체인 미디어를 독점한 언론인은, 시혜적 태도를 지닌 채 그들의 어려움을 밝히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시각으로 그들을 재구성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적 이미지는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연구와 공공기록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그러한 공공기록은 다시 연구와 언론보도의 출처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 기록들은 서로서로 닮아있다. 식당은 열악한 일터이고, 식당노동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어려운 일들은 다른 일로의 진입이 어려운 중년 기혼여성들의 몫이다. 이들은 가난하게 태어나 가부장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원하는 만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가장이 되었거나 생계부양이 필요해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기록들이 보여주는 사실들은 실재하고 식당여성노동자의 그림자성을 지우는데 분명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에 면면히 흐르고 있는 선의성, 즉 이들을 구제해야 할 피해자로 국한시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기록으로는 당사자들을 제대로 재현할 수 없다.

식당여성노동자와 같이 기록되기 전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사건들이 말해지지 않고 전해지지 않은 채 잊힌다. 기록은 존재의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존재가 인식되어야 기록으로 만들어지고 남겨진다. 이 상호작용에서 박탈당한 사람들은 계속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못하고 대리 재현된 다른 기록들이 그들의 삶을 대신 보여준다.

버거(Berger, 2019, 10)는 “그런 죽은 ‘공허한 말의 사용’은 기억을 지워 버리고 무자비한 자기만족을 낳는다.”면서 자신의 과업을 “말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아예 말해지지 않을 위험이 있는 것들. 나는 스스로 중요한, 혹은 전문적인 작가라기보다는 그저 빈곳을 메우는 사람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 했다. 서발턴 기록화를 위한 아카이비스트의 역할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다. 당대를 기록해 시대를 재현하려는 목적, 의도대로 분리하지 않고 온전한 개체로서 복합적 층위를 담아내는 방식 등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온전한 기록의 토대가 된다.

서발턴에 대한 기록화는 기존 기록으로는 알 수 없었던 개인의 이름, 시간, 삶들을 기록하여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노동과 삶의 의미, 희망과 절망을 마주하는 일이며, 한국의 정치·사회·경제 속에서의 개인의 삶을 바로 세우는 것이기도 하다. 식당여성노동자에 대한 제대로 된 기록은 여성이자 노동자인 한 개인의 온전한 재현을 돕는다. 스스로 기록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록의 도구와 미디어를 쥐어주는 것은 소수자와 소외자에게 주체성과 당당함을 부여할 수 있고, 삶의 재현가능성을 높여준다. 서발턴으로 묶어둔 외부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 서발턴에서의 해방가능성도 제시한다. 기록을 통한 시대의 재현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록이 이뤄지는, ‘지금, 여기’는 다양한 주체들로 채워진 시공간이다. 기록이 시공간을 채우는 생명 자체를 분리하고 포함하면서, 배제해

기록한다면 아카이브의 권력적 속성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인간 자체의 목소리를 드러내는 기록이야말로 지향해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 그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스스로 말한 기록들이 대신 말해진 기록만큼 존재해야 하고, 둘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활동들도 필요하다. 생명 자체로서 존재자가 되는 온전한 인간에 대한 기록은 삶의 정당성과 존재의 목소리를 지켜 내 인간됨에 기여하는 기록이 될 수 있다.

기록이 모든 대상의 개별적인 삶을 다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방식으로든 선택이 불가피하고 이는 과소 또는 과잉 해석되어 기술하는 똑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존재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아카이브적 실천과 노력은 불가능하지 않다. 스피박은 서발틴을 차이에 의해서 정체성이 발현되는 존재라고 보았고, 네그리(Negri)가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언급한 다중(Multitude)은 차이가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주체를 말한다(Negri, 2011). 아키비스트와 대상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같이 발견하고 넓혀나갈 공통 분모를 토대로 개별자 및 집합체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의 아카이브적 실천이 쌓이면, 차이를 기반으로 사람 자체가 목적이 되는 새로운 방식의 아카이브의 시작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층위로 구성된 연구대상에 대한 기록을 엄밀하게 수집 분석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나, 식당여성노동자의 기록현상을 분석해 기록이 가지는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기록 공백을 메우는 서발틴 기록화와 이를 위한 연구의 필요를 제기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를 딛고 서발틴 기록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서발틴을 기록화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후속 연구와 아카이브적 실천들이 이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준만 (2014). 감정독재. 서울: 인물과사상
- 고용노동부 (2020.9). 2019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 고용노동부 (2020). 2020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보고서.
- 김소연 (2019). 다양한 노동기억의 전승을 위한 지역노동자공동체 구술기록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김수환 (2009). 정체성과 그 잉여들 : 문화기호학과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사회와 철학, 18, 71-98.
- 김영. 설문원 (2015). 구술생애사 기록을 통해 본 사회운동참여의 맥락_밀양765kV 송전탑건설반대운동에 참여한 여성주민들의 구술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101-151.
- 김원 (2011). 박정희 시대의 유명들. 서울: 현실문화
- 김원정 (2011). 식당여성노동자 인권적 노동환경 만들기 : 문제 진단과 정책·설천 과제. 한국여성민우회 발간자료, Vol.2011.
- 김익한. 장대환 (2018). 기억, 기록, 아카이브 정의. 기록학연구, 59, 277-320.
- 김창래 (2012). 상, 재현, 언어, 가다머의 언어개념. 철학, 제10집, 49-82.
- 김효정 (2009).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노동의 의미에 관한 연구 : 소규모 식당노동 종사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 농림축산식품부 (2019). 2019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보고.
- 류한조 (2008). 재현을 위한 기록콘텐츠 개발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 박성수 (2000). 재현, 시뮬라르크, 배치. 문학과학, 24호.
- 백선기 (2006). 한국 언론의 소수자·약자 보도 경향과 사회문화적 함축의미. 저널리즘평론, 2005년 2호 통권 21호, 10-62.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5). 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서울노동권익센터 (2017). 서울지역 여성 비정규직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 설문원 (2019). 기록이란 무엇인가 : 활동의 고정적 재현물로서의 개념 탐구. 기록학연구, 59, 5-46.
- 송기역 기획 (2015). 숨은 노동찾기. 파주: 오월의봄.
- 송지수 (2019). 다큐멘터리 노동기록 재현과 사회적 함의 : 영화 〈위로공단〉의 기록 활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 신경아. 박기남 (2006). 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_10인미만 음식점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소규모 음식점업 여성노동자 실태와 정책 과제 토론회 자료집. 민주노동당·국회의원 단병호.

- 신승환 (2017). 생명정치학의 철학적 지평. 철학논집, 제51집. 155-181
- 안미선 (2019). 여성 목소리들. 파주: 오월의봄.
- 안수찬, 임인택, 임지선, 전중휘 (2012). 4천원 인생. 서울: 한겨레출판.
- 안채영, 김지현 (2020).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 개선방안 연구. 기록학 연구, 66. 105-155.
- 여성노동자글쓰기모임 (2016). 기록되지 않은 노동. 서울: 삶창.
- 윤은하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 이문영 (2017). 옹크린 말들. 서울: 후마니타스.
- 이승원, 정경원 (2011). 우리가 보이나요?. 고양: 한내.
- 이윤재 (2017). 여성인권기록화 전략연구: 성차별 기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진태원 (2018). 을의 민주주의. 서울: 그린비.
- 질병관리본부 (2019).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3차년도(2018) 조사결과.
- 천정환 (2011). 서발턴은 쓸 수 있는가: 1970~80년대 민중의 자기재현과 민중문학의 재평가를 위한 일고. 민족문화사연구, 47호, 224-254.
- 통계청 (2019.11). 2019년 10월 고용동향.
- 통계청 (2020).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 한국노동연구원 (2016). 음식점 및 주점업의 산업특성과 고용구조 변화. 월간 노동리뷰, 2016년 6월호, 65-75.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7). 2017년 서비스업 조사 외식업 주요 동향 및 특징.
- 한국여성민우회 (2011.9). 식당여성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식당여성노동자의 인권적 노동환경만들기' 토론회 자료집.
- Berger, J. (2019). Confabulation. 김현우 옮김 (2019). 우리가 아는 모든 언어, 파주: 열화당
- Jalbert, P. L. (1983), Some Constructs for Analysing News. In Howard Davis & Paul Warton(eds.), Language, Image, Media, Newyork : St. Martin's Press.
- Jimerson, R. C. (2009). Archives Power :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옮김 (2016). 기록의 힘 :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Rancière, J. (1998). Aux bords du politique. 양창렬 옮김 (2016).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서울: 도서출판 길.
- Fly, D. L. (1985), Differential Ideology and Language Use : Reader's Reconstruction and Edscriptions of News Event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2(4).

- Spivak, Gayatri Chakravorty (1988), Can the Subaltern speak?, Maxism and interpretation of culture.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 Yeo, Geoffrey. (2007), Concepts of record (1) : Evidence, information, and persistent representations. The American Archivist 70(Fall/Winter 2007). 315-343.

〈웹사이트 및 언론기사〉

-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 <http://www.kinds.or.kr>
- 영국 영파운데이션, <https://www.youngfoundation.org/publications/rough-nights-the-growing-dangers-of-working-at-night/>
- 한국 여성노동자 '37년의 기록' 투쟁, 그 이후. (2019.10.12).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0120600025&code=940100
- 머리가 하는 노동, 손이 하는 노동. (2017.7.27).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f7ff09cc4af3477e9218a5c83286815f>
- 가난한 청년 뒤편 가난한 부모 있다. (2016.1.26).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1262259135&code=940100
- 여성 노동력, 불안정 직업군에 쏠려 있다. (2018.4.11).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40197.html
- 식당·술집서 등 떠밀린 이직자 사상최대. (2018.8.12). 한국일보, <http://hankookilbo.com/v/e0ceab58f0f3469ca566df4497893543>